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 참 빨리 간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 보셨죠? 시간이 실제로 점점 빨라지는 건 아닌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자, ㉠그림을 보세요. 이 건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게 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린 학생들은 정적인 이미지를, 노인들은 동적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제가 오늘 이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수축 효과’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타임머신이 등장하는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는 심리학 용어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 시계 효과’입니다. 생리 시계 효과란 신체가 노화되면서 몸이 느끼는 생리학적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느려져 상대적으로 실제 시간의 흐름을 더욱 빠르다고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리학적 시계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는데, 노화와 함께 도파민의 방출이 줄어들고 생리학적 시계도 느려진다고 해요.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뎁건은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나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마음속으로 3분을 헤아리게 한 후 버튼을 누르게 했더니, 청년층은 평균 3분 3초, 중년층은 3분 6초, 노년층은 3분 40초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일수록 생리학적 시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3분 40초를 3분으로 인식한 노년층과, 3분 3초를 3분으로 인식한 청년층 중에서 누가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실제 시간을 더 짧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상 효과’입니다. 회상 효과란 나이가 든 사람이 과거를 회상했을 때, 최근의 경험보다 젊은 시절의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해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시절에 겪은 일들이 주로 새로운 경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할 일이 많은 시기는 길게 느껴지고, 기억할 게 없는 시기는 짧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노년층은 새로운 경험이 많았던 청년기와는 달리 노년기에는 새로운 경험이 적기 때문에 노년기를 기억할 게 별로 없는 시기로 느껴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수축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른들께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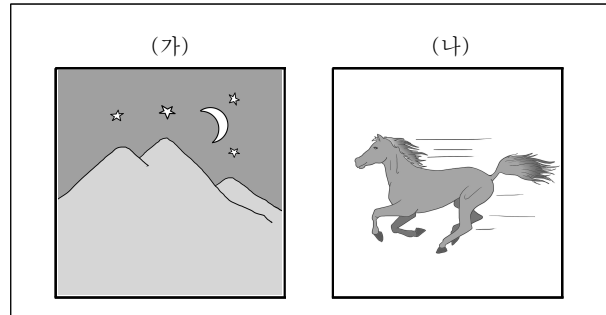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수축 효과의 개념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시간 수축 효과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 수축 효과의 의미를 설명한 후 시간 수축 효과를 다른 심리 현상들과 비교하고 있다.
- ④ 시간 수축 효과의 원인에 대해 상반되는 가설들을 제시한 후 발표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⑤ 시간 수축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후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담은 조언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2. 위 발표에서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② 발표의 마지막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며 화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 다음은 ㉠의 일부이다. 발표를 들은 학생이 (가)와 (나)를 보며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그린 사람은 ‘시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달리는 기차’보다 ‘서 있는 나무’를 선택하겠군.
- ② 회상 효과에 따르면, (나)를 그린 사람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비해 새로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겠군.
- ③ 회상 효과에 따르면, (나)를 그린 사람은 현재 시기를 별로 기억할 게 없는 시기로 느낄 가능성이 높겠군.
- ④ 생리 시계 효과에 따르면, (나)를 그린 사람은 (가)를 그린 사람에 비해, 생리학적 시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겠군.
- ⑤ 생리 시계 효과에 따르면, (나)를 그린 사람은 (가)를 그린 사람에 비해, 피터 뎁건의 실험에 참여했을 경우 더 일찍 버튼을 누르겠군.

(4~7) (가)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이 쓴 수필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학생 2: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읽을 교지에 수필을 기고하기로 해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학생 1: 무슨 주제로 쓸 건데?

학생 2: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해 쓰려고 해. 요즘 학급에서 사소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때문에 친구들끼리 다투는 일이 좀 잦았거든.

학생 1: 아, 그래서 배려하는 말하기를 생각했구나!

학생 2: 응. 그런데 흥미를 끌 만한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야.

학생 1: ㉠ 음..... 그러면 언총을 소개하면서 글을 써 보면 어때?

학생 2: 언총? 그게 뭐야?

학생 1: 그건 말을 묻는 무덤이야. 인문학 기행 갔을 때 봤는데 인상적이었어. 네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학생 2: ㉡ 언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어.

학생 1: 물론이지. 그때 경북 예천군 한대 마을에 갔었어. 그 마을은 옛날부터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말 때문에 시비가 잦아 싸움이 끊이질 않았대.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던 중 우연히 마을을 찾아온 나그네가 방법 하나를 알려 준 거지.

학생 2: 아, 그 나그네가 언총을 알려 준 거구나.

학생 1: ㉢ 그건 아니야. 그 나그네는 한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야산의 모양이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닮아 마을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야산에 커다란 재갈바위를 박으라고 말했다. 지형적으로 개의 입을 다물게 만든 거지.

학생 2: 정말? 야산에 바위 하나 박았다고 마을의 갈등이 해결된 거야?

학생 1: 그건 아니고, 나그네가 알려 준 방법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지. 마을을 시끄럽게 만든 건 누구일까, 혹시 자신은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학생 2: ㉣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언총을 만든 거야?

학생 1: 오, 이해가 빠른데? 마을 사람들은 상스럽고 원망이 담긴 말을 종이에 써서 묻은 후, 흙과 돌을 수북이 쌓아 올려 말 무덤을 만들었어. 이는 덕담과 칭찬의 말만 하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약속이었지. 이렇게 한 후부터 이 마을에서는 말로 인한 싸움이 없어져 마을 사람들은 평온하고 화목하게 지냈다고 해.

학생 2: 싸움의 원인이 될 만한 말을 아예 묻어 버리는 방법이 라니. 결국 불화의 원인이 되는 말을 없애려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 말 무덤이구나. 참 인상적이네.

학생 1: ㉤ 그렇지. 나도 나그네가 알려 준 방법보다 사람들이 말 무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인상 깊었어.

학생 2: 고마워. 덕분에 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나)

얼마 전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건넨 위로의 말로 그 상처가 아문 적이 있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 되어,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해답의 ㉡ 비밀을 경북 예천군 한대 마을에 있는 ‘언총(言塚)’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대 마을에서는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말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나그네가 말다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려 주었다. 나그네는 마을 야산이 개가 쐈는 ㉢ 모양의 형상으로 생긴 것을 쐈는 말다툼의 원인으로 보고 야산에 커다란 바위를 박아 지형적으로 개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조언을 실행하면서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스럽고 원망이 담긴 말을 종이에 적어 땅에 묻은 후 그 위에 흙과 돌을 쌓아 말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를 ‘언총(言塚)’이라고 부른다. 언총을 만든 후 마을은 평안해졌다고 한다.

한대 마을의 전설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지형을 바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말다툼을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했다는 것이다. ㉣ 한대 마을은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한번쯤 가 볼 만하다. 마을 사람들은 타인의 조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 말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다.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은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한대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말 무덤을 하나씩 만들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묻어 버리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가)의 ㉠~㉤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 ② ㉡은 상대방이 제시한 화제를 언급하며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은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내용을 바로잡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 ④ ㉣은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은 상대방의 말을 긍정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학생 2’가 (나)를 쓴 후, ‘학생 1’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1: 교지에 실을 글은 다 썼다며, 내가 말해 준 내용도 담은 거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한데?
학생 2: 내가 _____ [A]

- ① 한대 마을로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던 경험에 대해 말해 줬잖아. 그래서 나도 예전에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던 내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했어.
- ② 한대 마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해 줬잖아. 그래서 나도 우리가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을 변화시킨 내용을 글에 포함했어.
- ③ 한대 마을 사람들이 덕담과 칭찬을 나누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 줬잖아.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 덕담과 칭찬의 말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했어.
- ④ 한대 마을처럼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해 언총을 만든 다른 마을들에 대해서 말해 줬잖아. 그래서 나는 언총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을들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했어.
- ⑤ 한대 마을 사람들이 말 무덤을 만들어 상스럽고 원망이 담긴 말을 묻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말 무덤을 만들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묻어 버리자는 내용을 글에 포함했어.

6. (나)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한 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적 순서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 ⑤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7. ㉠ ~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의 맥락을 고려하여 ‘되기도 하고’로 바꿔야겠어.
- ②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실마리’로 바꿔야겠어.
- ③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모양의’를 삭제해야겠어.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독자: 학생회 임원들
- 글의 목적: LOUD 캠페인 활용을 건의함.

학생이 떠올린 생각

-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들을 언급해야겠어. ㉠
- LOUD 캠페인의 개념을 간략히 정의해야겠어. ㉡
- LOUD 캠페인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설명해야겠어. ㉢
- LOUD 캠페인의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해야겠어. ㉣
- LOUD 캠페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겠어. ㉤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반 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승강기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 등이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방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LOUD(Look Our society Upgrade Daily life) 캠페인을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LOUD 캠페인이란, 작은 아이디어로 공공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LOUD 캠페인의 밑바탕에는 대중을 규제나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LOUD 캠페인은 대규모 행사와 같은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홍보물 부착과 같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LOUD 캠페인은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 의식의 성장과 시민 주도적 소통 문화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OUD 캠페인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캠페인 장소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공공의 문제를 그것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는 방법입니다. 둘째, 단순한 문자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여 문제의 본질을 쉽고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는 방법입니다.

[가]

8. ‘학생이 떠올린 생각’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조건>에 따라 '학생의 초고'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학교에서 LOUD 캠페인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할 것.
-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할 것.

- ① LOUD 캠페인은 큰 실천보다는 작은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LOUD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② LOUD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평소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학교 공공의 문제에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 ③ LOUD 캠페인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 ④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LOUD 캠페인의 실천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학교 전체의 실천이 됩니다. 학교 내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LOUD 캠페인의 실천입니다.

10. [A]를 바탕으로, 학생회 임원들에게 LOUD 캠페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발표를 하고자 한다. <보기>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마을을 변화시킨 새로운 시도
LOUD 캠페인으로 큰 효과 거둬

◇◇ 마을의 분리수거장에 새로운 홍보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은색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이 수거장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것이 마을의 골칫거리였다. 행정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LOUD 캠페인 방식의 홍보물이 수거장 벽에 부착된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 □□일보 -



- ① 홍보물이 분리수거장에 부착되었다는 것은, LOUD 캠페인이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캠페인 장소로 선정한다는 것의 예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다양한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홍보물을 만든 것은, LOUD 캠페인이 거창한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각인시킨다는 것의 예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무단 투기?' 등의 간단한 문구가 제시된 것은, LOUD 캠페인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단순한 문자를 이용한다는 것의 예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지속적인 단속으로도 무단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중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LOUD 캠페인의 철학을 부각시키는 예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홍보물 부착 이전과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LOUD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의 예로 활용할 수 있겠군.

11.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분류 기준

- 형태 변화 여부
-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 단어가 지닌 의미

〈 보 기 〉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12. 다음은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고, <보기>는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ㅊ, ㅌ), ㅌ(ㄷ, ㅌ, ㅊ, ㅌ, ㅊ,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6항**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보 기 〉

- 학생 1:** '국밥'의 표준 발음은 [국밥]이야, [국뽕]이야?
- 학생 2:**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르면, [국뽕]이 맞아. ㉠
- 학생 3:** '아무리 뽕대도 소용이 없다.'에서 '뽕대도'는 받침 'ㄷ' 뒤에 'ㄷ'이 연결되기 때문에 [뽕대도]로 발음하겠네. ㉡
- 학생 2:** '그가 집에 간다.'에서 '간다'는 [간다]로 발음하는데, '꺼안다'는 왜 [꺼안따]로 발음하지?
- 학생 3:** '간다'의 기본형이 '가다'이므로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야. 그래서 표준 발음법 제24항을 적용할 수 없어.
- 학생 1:**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꺼안다'는 [꺼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 ㉢
- 학생 2:** 그러면 '그녀를 수양딸로 삼고 싶었다.'에서 '삼고'는 어간 받침 'ㄹ' 뒤에 'ㄱ'이 결합되어 [삼꼬]로 발음해야겠네. ㉣
- 학생 3:** '결과(結果)'는 [결과]로 발음하는데, '갈등(葛藤)'은 왜 [갈똥]으로 발음하지?
- 학생 1:** '갈등(葛藤)'은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갈똥]으로 발음하지만, '결과(結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올바른 문장이란 문장 성분이 잘 갖추어진 문장이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일컫는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 혹은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이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이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성분이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성분이다. 독립 성분에 해당하는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다.

이러한 문장 성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가령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주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과 서술어 ‘가지고 싶다’가 어울리지 않아 잘못된 문장이다. “지수는 시간이 나면 음악과 책을 듣는다.”는 목적어 ‘책’과 서술어 ‘듣는다’가 어울리지 않아서, “다들 시험 치느라 여간 힘들다.”는 부사어 ‘여간’과 서술어 ‘힘들다’가 어울리지 않아서 잘못된 문장이다. 둘째,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여기에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경우 등이 있다. 예컨대 “나도 읽었다.”는 서술어 ‘읽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아이가 편지를 넣었다.”는 서술어 ‘넣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 체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단어들.
* 용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들.

13.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①	우리가, 통과했어	힘든, 관문을	야호, 드디어
②	우리가, 힘든, 관문을	통과했어	야호, 드디어
③	우리가, 드디어, 통과했어	힘든, 관문을	야호
④	우리가, 관문을, 통과했어	드디어, 힘든	야호
⑤	관문을, 통과했어	우리가, 힘든	야호, 드디어

14. 다음은 [A]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올바른 문장 표현 익히기

● 잘못된 문장

- ㉠ 그는 친구에게 보냈다.
㉡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해야 한다.
㉢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
㉣ 할아버지께서 입학 선물을 주셨다.
㉤ 사람들은 즐겁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잘못된 이유

-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됐어. ①
㉡: 부사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②
㉢: 주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③
㉣: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됐어.
㉤: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아.

● 고쳐 쓴 문장

- ㉠: 그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다.
㉡: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는 것이다.
㉣: 할아버지께서 어제 입학 선물을 주셨다. ④
㉤: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⑤

15.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현대어 해석]

가운뎃소리는 모두 열한 자(字)다. ‘·’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ㅡ’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ㅣ’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으니,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 「훈민정음 제자해(訓民正音 制字解)」 —

- ① ㉠은 ㉢과 달리 발음할 때 얇은 소리가 나졌군.
② ㉡은 ㉠과 달리 글자 모양이 평평하게 생겼군.
③ ㉢은 ㉠과 달리 발음할 때 혀가 오그라들지 않았군.
④ ㉠, ㉡, ㉢은 모두 가운뎃소리 열한 자에 포함되는군.
⑤ ㉠, ㉡, ㉢은 대상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거리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람이 “아!”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공감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감으로 인해 사람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20세기까지 공감은 ‘이론-이론(Theory-Theory)’과 ‘모의 이론(Simulation Theory)’을 통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이론-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인과적 법칙이 있다는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져 다친 타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개념적 이론에 근거하여 그가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론-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모의 이론은 자신이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지를 상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모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시킨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실험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넘어져 다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상상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은 한동안 상호 배타적인 논쟁을 해왔다. 모의 이론 측에서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이론-이론 측에서는 모의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버먼은 두 이론을 통합한 두 체계 이론을 내세운다. 리버먼에 따르면 사람은,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뿐만 아니라 이론-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화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고,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추상적 이유를 알고자 할 때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다시 말해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거울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타인의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리버먼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이다. 한 사람이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이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선행하면서 논리적 추론의 전제가 됨을 의미한다.

[A] 다만,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감은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후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16. 위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두 이론을 통합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이론의 역사적 변천을 소개하고 이론들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 과정을 기존 이론이 탄생한 과정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사회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타당성 측면에서 그 이론들의 우열을 가리고 있다.

17. ‘이론-이론’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실험 상황]

3~5세의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보게 한 후 “방으로 돌아온 셸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어디부터 살펴볼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인형극 내용]

셸리와 앤이 함께 방에서 놀고 있다. 셸리는 바구니 안에 자신의 구슬을 넣는다. 셸리가 방을 나가 산책을 간 사이에 앤이 그 구슬을 상자로 옮긴다. 이후 셸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실험 결과]

실험 대상자의 30%는 셸리가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70%는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①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70%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 셸리의 행위를 예측하였겠군.
- ②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동들은 구슬의 실제 위치를 셸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겠군.
- ③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답한 30%의 아동들은 자신과 셸리가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했겠군.
- ④ 셸리의 마음에 공감한 아동들은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셸리가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⑤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동들은 앤의 행동이 구슬이 있는 위치에 대한 셸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겠군.

18. [두 체계 이론에 따라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씨는 일요일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동료를 보면서 그의 신념이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 ① 거울 체계만이 작동되었을 것이다.
- ② 심리화 체계만이 작동되었을 것이다.
- ③ 거울 체계가 작동된 후 심리화 체계가 작동되었을 것이다.
- ④ 심리화 체계가 작동된 후 거울 체계가 작동되었을 것이다.
- ⑤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작동이 동시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1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아픔을 알고 함께 느꼈지만,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회피한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타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의도는 이해했지만, 타인의 정서 상태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기에 타인을 도와주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한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자신의 상황에 더 관심이 많아 타인을 돕지 않으려 했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20.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갈레세는 어떤 사람이 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손을 뻗은 사람과 이를 바라본 사람의 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운동 공명 이론’을 제시했다. 즉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관찰 대상의 두뇌를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관찰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① 갈레세는 자신의 운동 공명 이론과 리버먼의 심리화 체계가 동일하다고 보겠군.
- ② 갈레세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있다는 리버먼의 견해를 부정하겠군.
- ③ 리버먼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갈레세의 견해에 동의하겠군.
- ④ 리버먼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두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심리화 체계의 작동과 동일한 과정으로 보겠군.
- ⑤ 갈레세는 리버먼과 달리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군.

21.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론-이론은 모의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 ② 모의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모의실험은 “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나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④ 이론-이론에서는 2세 아동들은 4세 아동들에 비해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본다.
- ⑤ 모의실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 더 쉽다는 데서 출발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호는 준학이를 군용 침대 한끝에 앉힌 후,
“너 정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지?” 하고 물었다.
준학이는 창백하고 동글납작한 얼굴을 반쯤 모로 숙인 채,
“아뇨.” 하고는 저고리 앞섶만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그렇지 않니?”
“아뇨.”
중호는 잠시 사이를 두어,
“그럼 왜 **밤중에 울곤** 하니?”
준학이는 창백한 얼굴을 한 번 들었다가 곧 다시 숙이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그러니?”
준학이는 점점 고개를 밑으로 떨구어 버렸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날 테지. 하지만 너만이 부모를 잃은 게 아니란다. **여기 와 있는 애들 전부**가 다 부모 없는 애들이 아니냐. 나두 6·25 때 단 한 분 계시던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다. 바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던 날, 석 달 동안이나 나를 천장 속에 감추어 놓고, 잡수실 것두 변변히 못 잡숫구, 잠두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내 몸만 염려해 주시던 어머니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그날에 여의구 말았다. **유탄에 맞으신 거다**. 아마 나만 없었던들 **어머니**는 달리 몸을 피하셨을는지두 모르지. 그렇지만 내가 염려스러워서 방안에 꼼짝 았구 계시다가 그 변을 당하셨다.”

“그럼 선생님도 꿈에 어머니를 보시겠네요?”
준학이가 고개를 들었다.

[A] “보구 말구.”
“어떤 꿈이에요?”
준학이가 눈을 빛냈다.

“그야 여러 가지지. 어떤 때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음식을 먹기두 하구, 어떤 때는 같이 창경원에 벚꽃 구경두 가구,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밀도를 어머니가 치마폭 가득히 담아다 주시기도 하구…….”
“그럼 **제 꿈**과는 달라요.”
준학이는 곧 기가 죽은 음성으로,
“제가 꾸는 꿈은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꿈이에요. 목소리만 들려요. 밤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소리를 지르지요. 내가 여기 있단구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냥 서로 소리만 지르다가 울어 버리곤 해요…….”

준학이는 목구멍 속으로 흑하고 느끼고 나서,
“그때 제가 집에 있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몰래 놀러 나왔던 게 잘못이에요.”

“아니지. 그건 네 혼자 생각뿐이다. 지금 네 부모님은 너만이라두 무사한 걸 기뻐하실 게다. 우리 어머니두 그러셨다. 내가 천장에 숨어 있느라니까 불안간 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내려다봤더니, 어머니가 가슴에 피를 흘리구 쓰러져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두 어머니는 나를 보자, 애야 난 괜찮다, 어서 잠자꾸 가 숨어 있거라, 한참만 더 숨어 있거라, 하시기만 하셨다.”

준학이가 물기 어린 눈으로 종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종호 편에서 소년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자기의 눈에도 솟아오를 듯한 눈물을 소년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실은 종호에게도 좀 전에 이 소년에게 말한 것과 같은 좋은 꿈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의 장면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 종호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종호는 준학의 슬픔을 덜어 주기 위해 준학에게 운동을 제안한다. 또한 종호는 소년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평행봉을 만든다.

종호는 남준학과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부터 **아침 산보**를 계속했다. 거의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는 이 남달리 예민한 소년의 신경을 그렇게 해서 좀 누그러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준학 소년과 아침 산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종호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애들에게 어느 한 애만을 편애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몸이 약해 보이는 애를 더 아침 산보에 참가시켰다. 그중에 차돌이도 끼어 있었다.

차돌이는 역시 목수일에 재질이 있어서 나무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산보 도중에 곤잘 소나무를 가리키며, 이런 것은 기와집 도릿감으로 넉넉하고 저런 것은 초가집 기둥감, 요런 것으로는 지계를 만들면 제격이겠다는 등, 목수의 소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침 산보를 시작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되어서였다. 장태운이 자기도 산보에 끼겠다고 했다. 그러나 종호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동안 장태운은 김 목사의 주선으로 동대문 밖에 있는 모 중학교에 편입이 돼 있었다. 이것으로써 누구든지 공부만 하면 소년원에서도 상급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인 셈이었다.

이 장태운 소년이 얼마 전 야경대를 조직했을 때는 제 편에서 나서다시피 해서 대장이 되어 주었다. 종호 편에서도 당분간은 이 소년을 내세우느니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소년원 내에서 적잖은 주목의 대상이 돼 있는 애인지라, 그를 아침 산보에까지 넣어줄 수 없는 것이었다. 사소한 일 같지만 그를 아침 산보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자칫 다른 애들 편에서 볼 때 지나치게 특수한 취급을 받는 애라는 느낌을 줄는 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러저러 아침 산보를 시작한 지도 한 열흘 남짓 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종호 곁에 서서 산으로 오르던 남준학이,

“선생님 전 요새 꿈을 안 꿔요.” 했다.

“그래?”

종호는 그동안 한번도 이 애에게 꿈 이야기를 묻지 않고 있

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게 하지 말고 혼자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벌써 며칠째 돼요. 꿈 안 꾸는 게요.”

“몸만 튼튼해지면 그까짓 꿈같은 건 다 달아나 버리구 마는 법야.”

“그리고 요새 자기 전에 평행봉 운동도 해요. 어저께는 턱걸 일 다섯 번이나 한걸요.”

종호는 **한결 생기가 돋혀 있는 소년**의 동그마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맑은 아침 공기를 한번 힘껏 들이마셨다.

— 황순원, 「인간접목」 —

2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상상적 상황의 묘사를 통해 사건의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제시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화와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3. [제 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종교적 신념을 부각한다.
- ② 인물의 내재된 자책감을 드러낸다.
- ③ 인물의 비윤리적 태도를 강조한다.
- ④ 인물의 가식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 ⑤ 인물의 현실 극복 의지를 표출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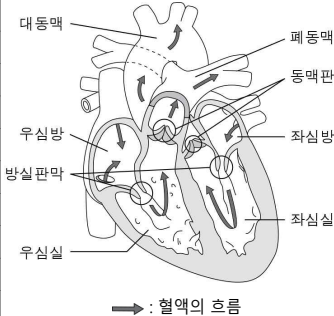
— < 보 기 —

전후(戰後) 소설은 전쟁의 폭력성이 불러온 비극적 경험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인물들은 인간성의 상실, 죽음의 체험, 공동체의 해체 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족 공동체의 해체는 가족의 죽음이나 이산(離散)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때 인물들은 정신적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지만, 이를 수용하고 극복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 ① ‘밤중에 울곤’하는 ‘준학이’의 모습에서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여기 와 있는 애들 전부가 다 부모 없’다는 것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어머니’가 ‘유탄에 맞’고 죽었다는 것에서 전쟁이 지닌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아침 산보’에 아이들을 구별해 참여시킨 것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공동체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한결 생기가 돋혀 있는 소년’의 얼굴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심장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으로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이러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장 박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심장음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림]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순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장은 [그림]과 같이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판막이 있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동맥판막이 있다. 여기서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에 비유될 수 있다. 방실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린데,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높을 경우에만 열린다. 동맥판막 역시 압력의 차이로 인해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린다. 그리고 혈액의 순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된다. 이후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좌심방으로 되돌아와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심실과 좌심실은 동시에 수축됨으로써 같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하여 몸 전체로 내보내는데,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므로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

㉡ 심장의 박동은 심실 확장기, 등용적 심실 수축기, 심실 수축기를 포함하는 수축 단계와 등용적 심실 이완기, 심실 채우기를 포함하는 이완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친다. 이 과정은 약 0.8초를 주기로 하여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먼저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심방의 근육으로 전달되면 심방이 수축된다. 이로 인해 심방의 압력이 심실의 압력보다 조금 높아지므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 심실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이를 심실 확장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심방을 수축시킨 전기 신호가 방실판막과 심방 벽을 진동시켜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그 전기 신호가 방실결절*을 통해 심실 전체로까지 전달되면 심실이 수축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심실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지므로 방실판막이 닫힌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동맥의 압력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동맥판막은 닫혀 있다. 따라서 수축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증가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4개의 판막은 모두 닫혀 있다. 이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므로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방실판막이 닫힐 때 길고 둔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1심장음’이라고 한다.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 수축

기는, 계속 증가해 온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되어 동맥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실판막은 여전히 닫혀 있고, 혈액은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심실의 크기는 이전 시기보다 작아진다.

전기 신호로 인한 수축 단계가 끝나고 심실이 이완되면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 동맥판막이 닫히게 된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심방의 압력보다 여전히 높으므로 방실판막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완으로 인한 심실의 압력 감소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 있다. 이 상태에서는 등용적 심실 수축기처럼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 이완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동맥판막이 닫힐 때 ‘제1심장음’보다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2심장음’이라고 한다. 이후 심실이 이완되면서 계속 감소해 온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도 낮아지면 방실판막이 열려 심실로 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를 심실 채우기라고 한다. 이때 방실판막이 열리면서 ‘제3심장음’이 발생한다.

이처럼 심장의 박동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압력 또는 크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기별로 일정한 심장음을 발생시킨다는 특성이 있다. ‘제1심장음’과 ‘제2심장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제3심장음’은 그 소리가 약해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서만 들리며, ‘제4심장음’은 음정이 낮고 짧아 드물게 들린다. 만약 판막이나 혈관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질병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 * 심장음: 심장 기능에 의해 생기는 음.
- * 동방결절: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심장을 수축시킴으로써 심장 박동의 리듬을 결정하는 심장의 한 부분.
- * 방실결절: 특수 심장 근육의 하나로 동방결절에서 진행된 흥분을 심실 근육 쪽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심장의 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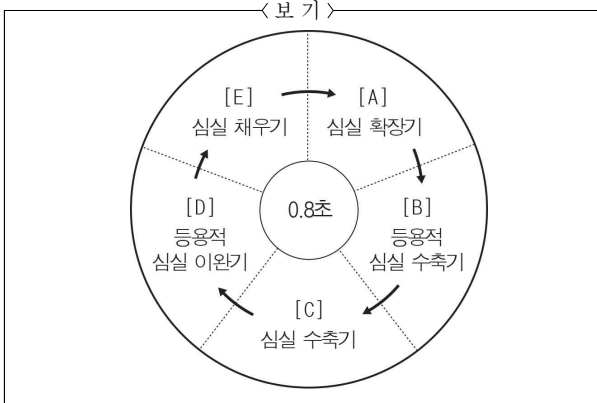
2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심실 벽이 좌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
- ②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 ③ ‘제3심장음’은 소아나 청소년들에게서만 들린다.
- ④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이다.
- ⑤ 판막이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한다.

26. ㉠을 중심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장의 혈액을 심실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실과 동맥 사이의 동맥판막이 열린다.
- ② 심장의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몸 전체로 내보낼 때에는 판막 4개를 거쳐야 한다.
- ③ 심장의 각 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장의 방실판막은 닫혀 있다.
- ④ 심장의 각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심실로 내보낼 때에는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 판막이 열려야 한다.
- ⑤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에는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와 달리 동맥판막이 열린다.

[27 ~ 28] <보기>는 ㉠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27번과 2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7. 윗글을 바탕으로 [A]~[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B]로 되면서,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되어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② [B]에서 [C]로 되면서, 심실 속 혈액량은 줄어들며 심실의 크기는 작아진다.
- ③ [C]에서 [D]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하며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제2심장음'이 발생한다.
- ④ [D]에서 [E]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되어 심실 속의 혈액량이 줄어든다.
- ⑤ [E]에서 [A]로 되면서, 전기 신호로 인해 심방이 수축되고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28. 윗글을 읽은 학생이 [B]와 [D]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글을 읽고 심방, 심실, 동맥을 압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B]와 [D]에서 그 순서가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어. 즉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이고, 그 다음 높은 것은 (㉢)이며, 가장 낮은 것은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 | | ㉡ | ㉢ | ㉣ |
|---|----|----|----|
| ① | 심방 | 심실 | 동맥 |
| ② | 심방 | 동맥 | 심실 |
| ③ | 심실 | 심방 | 동맥 |
| ④ | 동맥 | 심실 | 심방 |
| ⑤ | 동맥 | 심방 | 심실 |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우 소한(小寒)을 넘어 선 罍에 내려
매화나무 가지 아래 서서 보니
치운 공중에 가만히 뻗고 있는
그 가녀린 가지마다에
어느새 어린 꽃봉들이 수없이 생겨 있다.

밤이머는 내가 새벽마다 일어 앉아
싸늘한 책장을 손끝으로 넘기며 느끼는
옛저녁 그 모색(暮色) 속 한천(寒天) 아래 까무러치듯
외로이도 얼어붙던 먼 산산(山山)들!
그러면서도 무엔지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 뚫 돌던 느낌을
이 가지들도 느껴 왔는지 모른다.

오늘도 표연히 집을 나서
어디고 먼 바닷가에나 가서
그 바다의 양양(洋洋)함을 바라보고
홀로이 생각에 젖었다 오꼴음!
이런 수련한 심정도 어찌면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

매운 바람결이 물려 달을 적마다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는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살래살래 타일르듯 흔들거린다.

- 유치환, 「매화나무」 -

* 오꼴음: 오고 싶음.

(나)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 철근과 시멘트 속에도
숨쉬고 돌아다닐 길은 있었던 것이다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넣고
버텨겨 허리를 펴는 틈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을
수십 년의 시간, 분, 초로 나누어본다
아아,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온 것인가
그 느리고 질긴 힘은
핏줄처럼 건물의 속속들이 뻗어 있다
서울, 거대한 빌딩의 정글 속에서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우글거리고 있다
지금은 화려한 ㉡ 타일과 벽지로 덮여 있지만
새 타일과 벽지가 필요하거든
뜯어보라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
순식간에 구석구석으로 달아나 숨을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든 천연덕스러운 꼬리가 보일
툼! 툼, 툼, 툼, 툼툼툼툼툼……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사는 이 틈의 정체는
사실은 한 줄기 ㉢ 가냘픈 허공이다

하릴없이 구름이나 풀잎의 등을 밀어주던
나약한 힘이다
이 힘이 어디에선 스미듯 들어가면
튼튼한 것들은 모두 금이 간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가냘프고 나약한 허공만 끝끝내 남는다

- 김기택, 「틈」 -

(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도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 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老師)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없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곳곳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뭇사뭇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뭇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양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神通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 법정, 「설해목(雪害木)」 -

2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다)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치환의 「매화나무」는 화자와 대상의 교감을 다루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한겨울 추위 속 온기를 매화나무와 공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지금 자신이 느끼는 정서 역시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교감을 통해 화자는 매화나무로부터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 받는다.

- ① ‘한천 아래 까무러치듯’이 ‘얼어붙은 먼 산산들’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겨울의 추위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아련하고도 따뜻이 마음 뜬 돌던 느낌’을 매화나무 ‘가지들도 느껴 왔는지 모른다’에서 화자가 매화나무와 온기를 공유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저 가지들’을 보고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에서 화자의 정서가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꽃봉’에 ‘매운 바람결이 물려 닿을 적마다’에서 바람이 매화나무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녀린 가지’가 ‘외로움에 스스로 다쳐서는 안 된다’고 ‘타일르듯 흔들거린다’에서 화자가 느끼는, 매화나무와의 교감을 엿볼 수 있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고 연약한 존재나 거창하지 않고 평범한 행위들이 때때로 강한 힘을 발휘한다. 대개 이런 작은 존재들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고, 평범한 행위들은 일상적인 삶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가려진 존재나 일상적 행위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은 서로 힘차게 껴안고 있는 존재로,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강한 삶을 이룩하고 있다.
- ② ㉡은 틈을 덮고 있는 것으로, 작은 존재들을 가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
- ③ ㉢은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사는 것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 ④ ㉠은 노승이 학생을 위해 떠다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 ⑤ ㉡은 아름드리나무를 꺾는 존재로, 가볍고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32. (가)의 [뜰]과 (다)의 [바닷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뜰’은 현재의 기대가, ‘바닷가’는 현실의 불안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② ‘뜰’은 자연의 섭리가, ‘바닷가’는 자연의 현상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뜰’은 문명의 가치가, ‘바닷가’는 소유의 한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뜰’은 환희의 정서가, ‘바닷가’는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뜰’은 자연의 결핍이, ‘바닷가’는 자연의 충만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품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나 디지털화될 수 있는 상품, 이 모두를 ‘정보재’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및 이들을 디지털화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정보재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생산자는 어떤 전략으로 정보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을까? 이를 정보재의 하나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수요 측면의 특성으로 정보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잠김효과’를 들 수 있다. ㉠ 잠김효과란 어떤 정보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재보다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정보재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돈, 노력, 시간 등의 ‘전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치약이나 비누 등 일반적인 상품에도 잠김효과는 나타난다. 하지만 정보재는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가령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과 같은 것까지도 전환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보재의 이러한 수요 측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재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소비자가 그 정보재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상품의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 측면에서 드러나는 정보재의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에서, 정보재는 원본의 개발에 ㉡ 드는 초기 고정비용*은 크지만 디지털로 생산·유통되기 때문에 원본의 복제를 통한 재생산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한계비용*은 매우 작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원본을 개발하지 않고 재생산만 하는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원본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원본을 개발·재생산하는 기업과 원본을 재생산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동일한 정보재로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 정보재 가격이 낮아지면, 원본을 개발·재생산하는 기업은 초기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등과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정보재 원본을 개발·재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기도 한다.

한편,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정보재의 소비자를 고려하여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가치에 따른 ‘상품차별화’나 ‘가격차별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두 전략을 각각 혹은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상품차별화 전략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을 약간씩 다르게 만든 ‘버전(version)’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가격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정보재라도 소비자에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경향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A]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정보재의 가치에 따른 최대 지불 의사*를 기준으로 정보재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가령 소비자 사이

에 재판매가 불가능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유형별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기업이 어떤 정보재를 판매하고, 각 소비자는 가격이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이하일 때 반드시 구입하며 최대 구입 횟수는 1회라고 가정한다. 그 정보재의 초기 고정비용은 1,000원, 한계비용은 0원이며, 소비자 유형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고,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갑 유형이 800원, 을 유형이 400원이다. 만약 생산자가 두 유형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격을 책정할 경우, 즉 800원 혹은 400원으로 책정한다고 하면 정보재를 갑 유형만 구매하는 경우와, 갑과 을 유형이 모두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두 경우 각각 800원의 수입만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산자가 각각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정보재를 각각 판매한다면, 두 유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은 1,200원으로 초기 고정비용인 1,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생산자에게 200원의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 * 고정비용: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 한계비용: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 * 최대 지불 의사: 어떤 품질의 어느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지불하고 사겠다는 의도.

33. 밑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재의 정의
- ② 정보재의 종류
- ③ 정보재의 공급 측면에서의 특징
- ④ 정보재 시장에서의 법적 제도의 필요성
- ⑤ 정보재 시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변화 과정

34. 밑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업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병’과 ‘정’이 있다. ‘병’은 2년째 자신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과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 ○○ 기업에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한다. 단, ○○ 기업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병’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 기업은 새롭게 출시된 ‘정’의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정’에게 구매를 문의하였다. ‘정’은 ○○ 기업이 ‘병’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년 동안 ○○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이용한다면 ‘병’이 제시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 기업에 제안했다. 그런데 ○○ 기업은 ‘정’의 제품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 ① 만약 ○○ 기업이 ‘병’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면 전환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 기업에 ‘병’이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요금의 할인을 제안한 것은 잠김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이 ○○ 기업에 ‘병’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시한 것은 ‘병’의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잠김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만약 ○○ 기업이 ‘병’과의 연장 계약 후 1년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정’과 계약했다면, 발생할 위약금은 전환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만약 ○○ 기업이 ‘정’과 계약했다면, 여기에는 ○○ 기업이 ‘병’의 제품에 의해 발생한 전환비용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5. 기업이 ㉠을 발생시키기 위해 활용할 판매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재의 생산 계획을 세분화하여 생산 절차를 개선한다.
- ② 정보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안 유지 기술 향상에 힘쓴다.
- ③ 정보재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점검한다.
- ④ 정보재 유통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한다.
- ⑤ 정보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사용 기간을 제한하여 그 이후에는 기능을 멈추게 한다.

36. [A]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래의 표는 어느 가상의 소프트웨어 a버전과 b버전에 대해 소비자의 유형별 최대 지불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a버전의 초기 고정비용은 130원, b버전의 초기 고정비용은 70원이며 각각의 한계비용은 0원이다.

소비자 유형	a버전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b버전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	80원	50원
㉡	60원	30원

- *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유형별 정보를 알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고 가정함.
- * 소비자는 가격이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이하일 때 반드시 구입하며, 최대 구입 횟수는 1회라고 가정함.

- ① 생산자가 a버전만을 출시할 때 8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a버전이 ㉠에게만 판매되어 수입은 초기 고정비용보다 적겠군.
- ② 생산자가 a버전만을 출시할 때 6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a버전이 ㉠과 ㉡ 모두에게 판매되어 수입이 초기 고정비용보다 많겠군.
- ③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b버전이 ㉠에게만 판매되어 50원의 수입을 얻겠군.
- ④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3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b버전이 ㉠과 ㉡ 모두에게 판매되지만 수입은 초기 고정비용보다 적겠군.
- ⑤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에게는 50원, ㉡에게는 3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b버전이 ㉠과 ㉡ 모두에게 판매되어 수입이 초기 고정비용보다 많겠군.

3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교내 합창 동아리에 들었다.
- ② 꽃은 해가 잘 드는 데 심어야 한다.
- ③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 ④ 올해 들어 해외 여행자 수가 부쩍 늘었다.
- ⑤ 좋은 생활 습관이 들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대표적인 문학 갈래인 시조에는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삶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시조 작품에서 사대부가 자연 속에서 심성을 도야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사대부는 현실 정치의 참여보다는 자연 속에 은둔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유학적 가르침을 내면화했던 사대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삶은 관직의 유무에 따라 ‘출(出)’과 ‘처(處)’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유교 사회에서 ‘출’은, 유교적 가르침을 부단히 수양한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로서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사대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서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관직에 나아가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백성들을 ‘인(仁)’과 ‘의(義)’로써 다스리는 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출’의 가치를 달리 인식하기도 하였다.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사대부들은 ‘출’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처’를 선택하기도 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을 거부하고 ‘처’를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처’의 삶을 살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근심을 표현하며 우국충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 하였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시조에서 ‘궁달(窮達)’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또한 ‘처’와 ‘출’의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다. ‘궁(窮)’은 ‘빈궁(貧窮)’과 ‘빈천(貧賤)’을, ‘달(達)’은 ‘영달(榮達)’과 ‘부귀(富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을, 영달과 부귀는 고위 관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궁’은 ‘처’와, ‘달’은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천과 부귀는 앞에서 언급한 사대부의 삶의 처지와 관련지어 볼 때 단순히 경제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결국 관직의 유무에 따른 사대부의 처지와 그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출-달-부귀’와 ‘처-궁-빈천’이라는 대조적 맥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잘 보여주는 시조 작품으로 권호문의 시조와 임제의 시조를 들 수 있다.

- ┌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A] 총명하고 밝은 군자(君子)는 이것을 즐기나니
└ 하물며 부귀(富貴)는 위기(危機)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 권호문, 「한거십팔곡」 중 제8수 -

- ┌ 부귀(富貴)를 탐(貪)치 말고 빈천(貧賤)을 사양(辭讓) 마라
[B] 부귀빈천(富貴貧賤)이 절로 절로 도노이
└ 부귀(富貴)는 위기(危機)라 탐(貪)하다가 신명(身命)을 못느이라*

- 임제 -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설, 성주 땅에 심현이란 재상이 있어 다만 일자(一子)를 두었으니 이름은 의량이라. 방년 십오에 등과 입신하여 명망이 조야에 가득하매, 심상서 지극히 사랑하여 아름다운 규수를 구할새 추상서 집 처녀의 용모 재질이 매우 뛰어나고 듣고 매파를 보내어 통혼하니, 추상서 또한 이왕 심의량의 문장 조화가 출중함을 아시고로 허락하여 보내고 즉시 소저를 불러 심상서 집 사연을 이룬대, 소저 듣기를 마치고 얼굴빛을 달리하며 대왈,
“소녀 일찍 아뢰지 못함은 여자의 도리에 당돌하온고로 자연 미루어 지체하였더니, 이제 대인 말씀을 듣사오매 어찌 숨기리이까? 소녀 운향사에 갔을 때에 남양 땅에 있는 양상서의 아들 산백을 만나 삼년 함께 고생하였는데, 정의 상합하여 친지께 맹서하여 사생간(死生間) 서로 저버리지 말자 하오되 다만 종적을 속였삽더니, 양생은 본래 총명이 과인한고로 소녀의 본적을 살피웁고 춘정(春精)*을 금치 못하매, 소녀 급히 도망하여 집으로 오면서 벽상에 이별시를 기록하여 언약을 잊지 말자 하웁고 왔사온즉, 비록 예를 이루지 아니하였사오나 맹약은 이미 하였으매, 부모 아직 양생을 못 보신지라, 조만간에 양생이 찾아오리니, 바라옵건대 부모는 소녀의 깊은 정회를 살피소서.”
하거늘, 상서 대로 왈,
“내 집이 비록 패망하나, 너 같은 불효녀를 두어 문호에 욕되게 할 줄 어찌 생각하여 헤아렸으리요. 다시 이런 말을 내지 말라.”
하니, 소저 황급 왈,
“소녀의 맹세를 위하여 규중 처자로 올바른 도리를 다함에 응하고자 함이오니, 이제 소녀 하온 말씀은 정절에 마땅하온
[A] 바이어늘 어찌 문호에 욕된다 하시나니이까. 비록 맹약이라도 중도에 약속을 저버리건대 이 또한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옵니, 부모는 다시금 생각하소서.”
하고, 침소에 돌아와 심중에 헤오되,
① ‘부명(父命)을 좇은즉 절개를 잃음이요, 좇지 아니한즉 불효되리니, 차라리 내 몸이 죽어 혼백이라도 양생을 의지하리라.’
하고 베개를 의지하여 누웠더니, 문득 시비 들어와 양생의 말을 일일이 고하거늘, 소저 부모 알까 생각하여 시비로 하여금 후원 앵춘당으로 양생을 인도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부친께 고왈,
“운향사의 지주 고한대 양생이 왔다 하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부친은 한번 봄을 허락하소서.”
상서 노왈,
“네 끝내 아버를 가버이 여겨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 빨리 양생을 쫓아 보내라.”
하니, 소저 슬피 울며 왈,
“이제 그가 불원 천리하고 왔삽거늘, 어찌 박절히 쫓아 보내리이까.”
한대, 상서 듣기를 마치고 헤오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잠깐 보게 하리라.’
하고 비로소 허락하니, 소저 침소에 돌아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단장을 고치고 후당에 나아가 양생을 맞아 예절을 갖추어 마주 대하니 양생이 눈물을 머금으며 왈,
“내 낭자를 이별한 후 무성한 근심으로 세월을 허비하다가 만가지 즐거움이 소용이 없고 헛되이 근심하여 가오니, 낭자는 이 사정을 어여뵈 여기소서.”
하더라.

[총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의 반대로 추소저가 양생의 구애를 거절하자 양생은 추소저가 왕래하는 길가에 자신을 물어줄 것과 자신의 편지를 추소저에게 전해 달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다. 추소저는 심의량과의 혼례 후 양생의 죽음을 알게 되어 신행을 핑계로 양생의 무덤에 가서 제문을 올린다. 그때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고 추소저가 무덤 안으로 뛰어들자 신행을 따라가던 일행은 당황해 한다. 한편 추소저는 죽어 양생을 만나게 되고 둘은 함께 지장왕 앞에 이르게 된다.

지장왕이 황건역사를 명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인간에 내려가 혼백을 육신에 붙이고 오라.”
한대, 역사 수명하고 양인을 거느려 운남산으로 향할새, 한곳에 다다르니 산수는 수려하고 화초는 난만한데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이 아득하며 수놓은 문과 담장이 영롱하거늘, 양생이 문왈,
“이곳은 어디며, 이 집은 뉘 집이뇨?”
역사 왈,
“그대 인생살이에 시력이 상하여 고향을 모르는도다. 이 산은 봉래산이요, 이 집은 수정궁이다. 전일 그대 삼신산 신선과 더불어 풍경을 완상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이월 그름은 영보도군(靈寶道君)의 탄일이라. 상제 잔치를 열어 즐기실새, 이때 낭자 참례하였다가 일시 춘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와 더불어 외통함을 상제 아시고 그대 양인을 적강(謫降)*하시니라.”
하더라.
차시는 추구월(秋九月) 보름이라. 월출동령하여 청광이 조용한 곳에 한 줄 무지개 월궁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는 추씨의 무덤에 박히고 하나는 양생의 무덤에 박히더니, 문득 두 무덤이 일시에 갈라지며 무덤 속 오운(五雲)이 일어나는 곳에 두 사람의 시체가 움직여 일어나며 무지개 다리를 쫓아 한곳에 모이매, 서로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들끓다 붙들고 왈,
“오늘날 우리 양인의 만남이 어찌 하늘이 정함이 아니리요.”
하고, 서로 이끌어 평강으로 향하여 가니라.
차설, 앞서 추씨를 신행(神行)*하여 가던 일행이 소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감을 보고 일변 신기히 여기며 일변 매우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돌아보아 왈,
“돌아가 무슨 말씀으로 노아께 고하리요.”
하며 망설이다가, 인하여 본부(本府)에 돌아가 소저의 전후 사연을 세세히 고하거늘, 상서 부부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왈,
“우리 부부 늘그막에 일녀를 두었다가 양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친고에 없는 변괴를 당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며, 주야 슬퍼하여 왈,
“당초에 여아의 말을 좃아 심가를 거절하고 양산백을 찾아 결혼하였던들 저희 평생을 즐길 것이요, 우리 또한 의탁할
[B] 곳이 있을 것이어늘, 내 생각이 미혹하여 이 지경을 당하매 어찌 후회함을 면하리요.”
하더니, 이력저력 수삭이 지난 후 일일은 문득 시비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엎드러지고 곱드러지며 급히 들어와 왈,
“우리 소저 살아 오시나이다.”
하며 허둥지둥하거늘, 상서 부부 반신반의하며 급히 물어 왈,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움을 보지 못하였거든, 너희는 어떠한 사람을 보고 소저라 하여 우리 심사를 산란케 하는다.”
하였더니, 이윽고 시비 등이 일제히 소저와 양생을 데리고 들어오며 매우 기뻐하거늘, 상서 부부 황망히 소저를 붙들고 울며 왈,

“네 진짜 살아 오느냐, 네 죽은 혼이 우리를 희롱하냐. 네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느냐. 그 진짜와 가짜를 깨닫지 못하며 너는 실정을 베풀어라. 저 선비는 뉘뇨?”

소저 눈물을 거두고 가로되,

“소녀 부모께 불효를 끼침이 죄당만사(罪當萬死)*오며, 차인은 운향사에서 함께 고생하던 양생이로소이다. 소녀 양생과 더불어 전생 인연이 있삽기로 이승에서 부부 되어 백년 동락하려 하옵다가, 조물(造物)이 시기하므로 양생이 함원치사(含怨致死)*하고 소녀 또한 여차여차하여 죽었삽더니 명부에서 우리 양인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도로 나가 전생의 미진한 연분을 맺으라 하시고 소녀와 양생의 혼백을 보내어 육신에 붙이매, 이리므로 우리 양인이 환생하오니 이 어찌 인력으로 하올 바이리까.”

하더라.

— 작자 미상, 「양산백전」 —

* 춘정(春精): 남녀 간의 정.

* 적강(謫降):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

* 신행(新行): 혼인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일.

* 죄당만사(罪當萬死):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함.

* 함원치사(含怨致死): 원한을 품고 죽음에 이름.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삽입 시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4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밝히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고, [B]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 ② [A]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B]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상대방 견해의 논리적 모순점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자신의 주장이 정절에 어긋나지 않음을 내세우며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고, [B]는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행동을 위우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양산백전」에서 남녀 주인공인 양산백과 추소저는 초월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들이 이동하는 공간을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적강, 죽음, 재생의 모티프는 주인공들이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① a에서 b로 양산백과 추소저가 적강한 것은 상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군.
- ② b에서 추소저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심의량과의 혼례가 추진되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군.
- ③ b에서 양산백은 추상서가 추소저와의 대면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소저를 보지 못한 채 죽어 c로 가게 되는군.
- ④ c에서 양산백은 자신이 a에서 신선과 함께 생활했던 일을 황건역사를 통해 듣게 되었군.
- ⑤ d에서 추소저는 상서 부부에게 자신과 양산백이 재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재생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군.

45. 윗글을 읽은 독자가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추소저는 ()의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야.”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② 진퇴양난(進退兩難)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주객전도(主客顛倒)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